

순천시, 취수장부터 각 가정까지 수돗물 수질 관리 강화

2030년까지 6억 투입 3대 과제 추진
년 1천여건 검사·취약시설 방문 점검
내달 대통령수장 전 과정 전학 계획
손훈호 시장 “최상 상수도환경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취수장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아우르는 수질 관리를 강화한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민선 9기 핵심 업무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체감 수돗물 수질 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3대 핵심 과제는 먹는 물 수질 검사 강화, 수질 취약시설 선제 조치, 시민 대상 취·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우선 먹는 물 전 과정에 걸친 수질 검사를 강화한다. 법정 기준을 준수해 취·정수장 원수와 정수, 급수 과정·최종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을 통한 일간·주간·월간 검사를 시행한다. 연간 총 1천56건에 달하는 수질 검사를 진행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한다.

특히 가정 내 수돗물 수질에 요구심을 갖는 시민들을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한다. 시민이 검사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현장에서 수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즉시 안내한다.



내함으로써 일상 속 수돗물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수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수질 점검이나 신고가 어려운 요양시설, 경로당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제 수질검사’도 병행한다.

수질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재검사는 물론, 저수조와 급수관 등 관련 시설 오염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또 청소·소독 방법, 시설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시민들이 생산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시는 오는 10월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회당 15명 안팎 규모의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약 40분 동안 대통령수장(사진) 본관을 시작으로 응진지,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원수가 맑은 수돗물로 정수되는 전 과정을 체험한다.

각 구간에는 전문 안내 인력이 배치돼 공정별 역할과 수질 관리 기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훈호 순천시장은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시민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과 선제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시장은 또 “수돗물 생산 첫 단계부터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순천시민 누구나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상수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성학 기자



올해 10주년을 맞은 제10회 여수음악제가 최근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막을 올렸다. 사진은 정명훈 지휘자와 KBS교향악단의 공연 모습. <여수음악제재단 제공>

제10회 여수음악제 팡파르…5일까지 ‘축제의 향연’

예울마루서 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정명훈 고문 위촉·KBS교향악단 협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제10회 여수음악제가 막을 올리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로 도약을 알렸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0주년을 맞은 여수음악제는 최근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9월5일까지 축제의 향연을 이어간다.

개막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서영학 여수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인 거장 정명훈 지휘자를

여수음악제 예술고문으로 위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첫 무대에서는 정명훈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김세현, KBS교향악단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등을 협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음악제는 5일까지 ▲라프엘의 ‘Love Rhapsody’ ▲백운학의 ‘Cine-Fantasy’ ▲정명훈의 ‘열 번째 심포니, 계속될 선율’ ▲여수음악협상부의 ‘행복콘서트’ 등 무대를 릴레이로 선보인다.

여수상공회의소와 KBS교향악단 협력으로 2017년 첫발을 댄 여수음악제는 10년간 총 63회 공연을 통해 629곡을 무대에 올렸다. 누적 관람객 3만2천770명을 동원하며 명품 축제로 자리매

김했다.

박용하 여수음악제재단 이사장은 “음악의 위대한 꿈을 믿고 달려온 여정이었다”며 “여수음악제는 지난 10년의 자취를 기를 삼아 전남광주특별시라는 넓은 터전 위에서 새로운 10년을 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여수음악제 자체가 전남광주의 훌륭한 문화 자산”이라며 “특별시가 출범한 만큼 음악제의 명성에 걸맞게 힘을 보태고 이 열기가 2026 세계섬박람회 성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음악제의 아름다운 선율이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더 멋지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 유자, ‘칭다오맥주’와 함께 중시장 공략

산동불곤투자유한공사와 협력 논의
가공 신제품 개발·수출 확대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맥주유한공사와 손잡고 고흥 유자의 중국시장 확대와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둥성에서 공영민 군수와 산동불곤투자유한공사 강빈 회장, 칭다오맥주유한공사 유부하 부회장, 상하이 민허제 상무유한공사 임직원 등 중국 기업·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간담회에서는 고흥 유자 가공품을 활용한 맥주 등 신제품 개발 가능성과 중국 주요 도시를 겨냥한 현지 판촉·마케팅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협력 논의는 앞서 중국 현지 기업과 함께

고흥 유자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선보인 한중 합작음료 ‘하이뉴’의 제품화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칭다오맥주는 중국 내 인지도와 광범위한 글로벌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향후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고흥 유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흥군은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품질과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현지 유통망을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에 이어갈 방침이다.

나아가 단순 원물 수출을 넘어 고부가가치 가공 제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해 고흥 유자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칭다오맥주와의 만남은 고흥 유자의 새로운 글로벌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장성군, 미식산업진흥원 교육생 모집
소스마스터·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31일 “미식 도시의 명성을 높이고 지역 미식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성미식산업진흥원 9월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문 민간자격증 취득반과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1일 과정인 원데이클래스로 나눠 진행된다.

자격증 취득반은 중식·일식 소스마스터와 바리스타 2급 교육이다. 9월 2주차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저녁에 열린다.

소스마스터(10명) 과정은 30시간, 바리스타(12명) 과정은 20시간 동안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원데이클래스에서는 장성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를 배운다. 조리 분야는 곱감 사과 간풍기와 전복 토마토장이며, 베이커리는 샤인머스켓 케이크와 한가위 쿠키세트다.

신청은 장성미식산업진흥원 누리집이나 방문·전화로 통해 가능하며 정원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의 매력을 담은 차별화된 미식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지역 내 미식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군,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 제공

‘화순버스’ 앱 개발 서비스 시작
노선·위치·도착 예정 시간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31일 “군민과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버스 정보 모바일 앱 ‘화순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순버스 앱은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노선 검색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화순지역은 버스 실제 운행 위치나 도착 시간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정류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컸다.

특히 배차 간격이 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정확한 운행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군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순버스’ 앱은 군민·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욱 건설교통실장은 “화순버스 앱은 군민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라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군,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 정비

23일까지 노후 간판도 안전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오는 2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유해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광고물을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키고 유해한 정서 저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각 읍·면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집중 수거·단속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부착·설치된 불법 광고물

정비는 물론, 노후·위험 간판 안전 점검을 병행해 각종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정비와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곡성중앙초, 삼기초, 옥과초 주변을 ‘광고물 클린존’으로 지정하고 기간과 관계 없는 상시 단속을 추진해 깨끗한 학교 주변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불법·유해 광고물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호응’

노인·장애인 등 14개 프로그램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31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개개인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맞춤형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군은 12개 제공기관을 통해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 등 노인 분야 8개, ‘남도소리 남도아이’ 등 아동 분야 4개, ‘재가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 등 장애인 분야 2개다.

맞춤형 서비스는 현재 약 1천100명의 군민이 이용하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각 마을 경로당을 거점으로 진행되는 노인 분야 프로그램은 어르신 건강 증진을 물론, 이웃 간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웃들과 유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건강도 챙기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니 일상에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다.

정선미 주민복지과장은 “사업을 통해 주민 각자의 상황에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 수요를 살피고 실생활에 와닿는 제감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